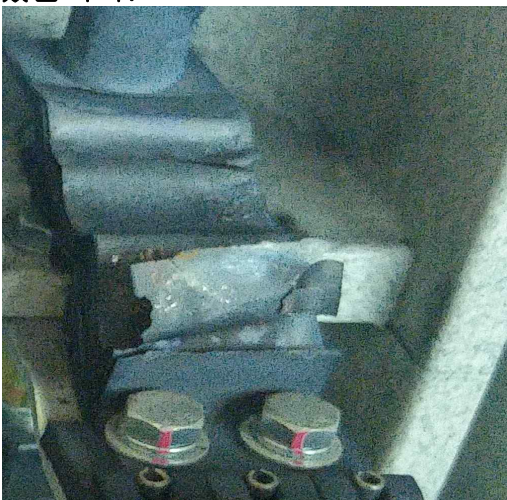


부식성 GAS가 발생하는 장소의 차단기 관리



상기 사진은 차단기 판넬에 부식성 GAS가 침투하여 열화된 상태입니다. 1번 사진은 도체 은도금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게 변색 되었고 “S”상 셉트(얇은 동판 겹친 것) 부분이 절손(잘라짐) 상태입니다. 2번 사진은 부식성 GAS에 의하여 도체의 부식으로 인하여 접촉부분의 접촉저항 과다로 발열 열화되어 접촉자가 쏟아지기 일보 전의 상태입니다.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제지공장 등의 판넬을 열어보면 차단기 뿐만 아니라 판넬내부 도체도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지어져 운영중인 곳은 판넬의 케이블 인입인출구를 철저히 막고 외부에서 전기실로 부식성 GAS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판넬내부에 부식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곳의 차단기 관리는 점검 주기를 짧게 관리해줘야 하며 차단기의 교체 주기도 짧게 잡게줘야 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평상시 가동 상태에서 온도 상승 상태 감시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접촉자, 접점 부위를 CLEANING 해줘서 접촉저항 과다로 인한 발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등 부식성 GAS가 발생하는 건물을 신축 할때는 설계 단계에서 전기실로 부식GAS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운영단계에서 TROUBLE을 줄이고 잦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번 사진 절손부 확대사진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won2774@daum.net 010-4567-0774 031)257-0932